

보도자료



작성부서	(주)바이오니아 기획조정실		
책 임 자		담 당 자	이역수 팀장 (042-930-8590)
2013. 10. 15 (화) 배포 시 취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니아, 오영수 신약부문 총괄부사장 영입

- 국내 대기업에서 쌓은 다수의 신약 개발 및 기술수출 노하우 펼칠 것.

- 바이오니아, 오영수 신약부문 총괄부사장 영입. 사노피를 포함한 다국적 기업과의 공동 신약 개발 및 기술이전 성과 앞당길 것으로 기대
- 신임 오영수 부사장은 국내 신약 개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경구용 항응혈제와 간질환 및 폐섬유증 치료제를 비롯해 다수의 신약 개발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였고,
- 개발신약에 대한 미 Parke-Davis (현 Pfizer) 및 Gilead에 기술 수출, 해외 임상 진행 등 신약 개발 및 사업화 분야에서 풍부한 성공 경험 보유.
- 바이오니아의 RNAi 신약 개발 분야에서 사노피와의 간암치료제 등 해외 공동 신약개발 및 COPD 등 자체 개발 치료제에 대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성과 가속화뿐 아니라.
-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 및 약물작용점 규명 서비스 기술인 GPScreen™의 사업 영역 확대와 강화 기대

(주)바이오니아(대표 박한오)가 LG생명과학 신약연구소 연구위원과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장 및 스크립코리아 연구본부장을 역임한 오영수 박사를 신약개발 총괄부사장으로 영입하였다.

오영수 총괄부사장은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과를 졸업하고, 휴스턴대학교(University of Houston, Houston, TX, USA)와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 USA)에서 박사과정을 거쳤다.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재직시 경구용 항응혈제와 간질환 및 폐섬유증 치료제를 개발해 미 Parke-Davis(현 Pfizer)사와 Gilead 사에 기술 수출을 주도하는 물론, 유럽 등에서 풍부한 임상 경험까지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신약 관련 라이선싱업무를 총괄하는 오픈이노베이션 센터장을 역임해 제약사업의 다분야를 섭렵한 국내 최고 수준의 신약개발 전문가로 평가 받고 있다.

바이오니아는 오영수 총괄부사장의 연구 개발, 기술이전, 임상 진행 등 신약 개발 전반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경험을 통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신약 개발 전반에 대한 가속화와 혁신을 기대 하고 있다.

SAMiRNA™를 이용한 사노피와의 간암치료제 개발이 1년여의 공동연구가 원만하게 진행되었고, 또 다른 다국적기업과의 공동 연구와 COPD(만성폐쇄성질환)등 자체 치료제 개발에 있어 다양한 연구 경험은 물론, 기술 수출의 경험을 가진 오부사장의 결합으로 신약 부문의 기술이전을 가속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부사장의 신약 개발 성공 경험을 살려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독성 및 약물작용점 규명 서비스인 GPScreen™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 영역 개척은 물론 시장 확대도 기대하고 있다.

□ 오영수 부사장 주요 약력 사항



○오영수(59년 1월 16일 생)

○주요 학력

서울대학교 화학과 졸

University of Houston, Houston, TX, USA 박사 졸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CA, USA 박사 후 과정

○주요 경력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연구위원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Open Innovation 센터장

스크립스코리아 연구본부장

현 (주)바이오니아 신약개발 총괄부사장(2013. 10. 14~)

○연구업적

경구용 항응혈제인 LB30057 개발로 미 Parke-Davis (현 Pfizer)에 기술 수출 (\$40M),

국내 개발 신물질 최초로 미국 FDA 를 통한 임상 시험 진입

간질환 및 폐섬유증 치료제 LB84451 개발로 유럽에서 임상 2상을 진행 중

미 Gilead 사에 기술 수출 (\$202M)

이외 P2Y12, GKA 등 다수의 신약 개발 후보 물질 발굴 및 임상과 전임상 진행 중